

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③	5	④
6	②	7	⑤	8	⑤	9	⑤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⑤	20	①
21	②	22	④	23	②	24	②	25	④
26	④	27	②	28	④	29	⑤	30	③
31	④	32	⑤	33	②	34	②	35	①
36	③	37	②	38	④	39	①	40	④
41	①	42	③	43	①	44	②	45	②
46	③	47	③	48	④	49	④	50	①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봉서 유신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가족신 대신 나막신을 새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막신은 굽이 높고 딱딱하여, 어린아이가 신으면 살갓이 벗겨지고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나막신을 선물했을까요? (사이) 나막신을 신고 다니다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가죽신을 신으면 편안함만 믿고 함부로 뛰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위험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함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봉서 유신환의 선물을 통해 선물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란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유신환이 자식에게 나막신을 선물한 것은 항상 처신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즉 자식이 살면서 지녀야 할 삶의 교훈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분류 기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면 숫자와 문자로 된 분류표가 붙어 있지요. 이 분류표에서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책을 열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듀이십진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듀이십진분류법은 미국의 멜빌 듀이가 개발한 것인데, 문헌을 열 개의 주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주로 이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이십진분류법은 인문과학 위주로 고안되었고, 유럽과 미국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 한국십진분류법을 만들었지요. 그 뒤 공공 도서관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류법에서 000번대의 총류에는, 하나의 주제로 나누기 어려운 것이나 여러 주제를 포괄하는 것이 속하는데, 사전이나 전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국십진분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을까요? 예를 들어, 811번대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맨 앞자리가 8인 것을 보면 문학 분야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리는 나라별 분류를 나타낸 것인데요, 1은 한국 문학, 2는 중국 문학, 3은 일본 문학 등의 순서로 배열되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 문학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리는 갈래별 분류를 표시합니다. 1은 시, 2는 희곡, 3은 소설, 4는 수필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셋째 자리가 1이니가 811번대의 책장에 꽂힌 책은 한국 문학 중에서 시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십진분류법으로 김유정의 『봄봄』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표시하면, 문학 '8', 한국문학 '1', 소설 '3'이므로 '813'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술실에서 의사들은 왜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수술복을 입고 있을까요? 그것은 '착시현상'의 일종인 '보색 잔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은 어떤 사물의 크기·형태·빛깔 등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보는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어떤 빛깔을 보다가 흰 색을 보았을 때 그 보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색 잔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세포는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와 망막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특정 색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주시하면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동안 붉은색의 피를 오랜 시간 보게 되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피로해져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감지하는 다른 원추세포는 여전히 활력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하얀 옷을 입은 동료들을 보면 옅은 청록색으로 보이는 보색 잔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잔상은 수술시 의사의 시야를 혼란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붉은색의 보색인 푸른색 수술복을 입음으로써 보색 잔상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눈의 착시 현상 중에서 보색 잔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우리 눈의 시세포는 크게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와 망막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 색을 지닌 어떤 물체를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 물체의 색에 해당하는 원추세포가 피로해져 다른 원추세포와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때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 물체의 보색이 보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색 잔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피의 색과 보색인 푸른색 수술복을 입는 것이다. 이러한 보색 잔상 현상은 색깔과 관계있는 것이므로, 망막을 구분하는 간상세포와는 관련이 없으며 원추세포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5]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모둠 활동은 잘하고 있지?

남학생: 우리 모둠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야. 너희는 어때?

여학생: 우리는 모둠원 한 명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모둠 전체의 성적이 나빠질까봐 다들 걱정이야. 그래서 난 자기가 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개별 활동이 더 낫다고 생각해.

남학생: 그래? 사실 우리 모둠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어. 내가 모둠장이 되어서 모둠원들의 역할을 나누었는데, 일부 모둠원들이 자기 역할을 바꿔달라며 모둠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거든.

여학생: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니, 갈등은 어떻게 해결한 거야?

남학생: 어느 날, 모둠원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 모둠원들은 역할을 분담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정해 준 게 서운했던 모양이야.

여학생: 모둠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남학생: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참 많아.

어떤 것을 정하고 추진할 때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이 모둠 활동의 기본이라는 사실 말이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여학생: 맞아.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모둠원들에게는 그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친구를 원망하게 된 것 같아.

남학생: 그래?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모둠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네.

여학생: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 친구가 왜 활동에 비협조적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마도 그 친구는 모둠 활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네 말처럼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겠구나.

남학생: 네가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모둠 활동이 주는 장점이 아닐까? 모둠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공통의 과제를 함께 수행해 가는 과정은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춰갈 때와 비슷한 것 같아. 어렵지만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야.

여학생: 너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모둠 활동도 잘될 것 같아. 고마워. 그 친구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여학생은 모둠 활동에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남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모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 [출제의도] 공통된 전제 파악하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모둠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여학생의 경우 비협조적인 모둠원으로 인해, 남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가지게 된 모둠원으로 인한 것이다. 두 학생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과의 솔직한 대화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때 두 학생은 모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쓰 기 **

6. [출제의도]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상하기
승마 종목에서 추출한 내용은 말과 호흡이 맞아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대상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②는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어 추출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가)에서는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미국에 비해 낮다는 것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1에서는 현재의 금융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개념 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2는 주로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는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을 근거로, 읍면 지역 학교에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 (나), (다)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및 보완하기
③의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식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막연하여 '바람직한 진로 선택'이라는 주제와의 긴밀성이 떨어진다. ⑤번의 '미래 유망 직업의 탐색과 선택의 중요성'은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외형적 가치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의 중요성 등을 말하고 있는 글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 이를 글의 흐름에 맞게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과 그에 따른 노력' 정도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㉔은 시 공원에서 본 내용이므로 네 번째 문단에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지훈문학관을 선정할 이유를 밝히는 첫 번째 문단으로 옮긴다는 ㉔번은 적절하지 않다. ㉔은 '문화 유적지를 할 수 있는'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으로 해석되기에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①번처럼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보기>의 계획에 따라 첫째 문단에는 답사 일정을 추가하고,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꾸어야 한다. ㉔은 문학관 관람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글쓰기의 조건은 시 공원에서 감상한 바를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다. ①번은 한 쪽 팔은 위로, 다른 쪽은 땅(아래)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의 연결이 없다. ②번에는 '정적인 가을 분위기'와 '역동적 춤사위'에 대조적인 표현이 드러나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③번에는 동상을 보며 느낀 감상을 '몸은 현실에 매여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를 꿈꾸는'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와 같았다.'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있다. ④번과 ⑤번에는 대조적인 표현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ㄱ의 '-으셨-'은 '-(으)시-'와 '-었-'이 축약된 것이다. '-(으)시-'가 '높임'을, '-었-'이 '시제'를 나타내는데, 둘이 함께 쓰일 때는 '높임 - 시제' 순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2. [출제 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파악하기

그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기에 '수줍다'와 '부끄럽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ㄴ의 경우에도 '아이'의 태도상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반면 ㄴ은 '거짓말'을 통해 주체의 잘못을, ㄴ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를 통해 과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므로 '부끄러움'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이무영, '제일과 제일장'

13.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논'에서 주인공(수택)은 강중이에 의해 해를 입은 벼포기에 마음 아파하면서 강중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이는 작품에 대해 가졌던 애정과도 같은 것으로 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④번은 적절하다. ①번의 '신문사'는 주인공의 기자로서의 고달픈 삶을 그리면서, 그런 삶으로는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②번의 '교외'는 삶의 희의를 느낀 수택이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다. ③번의 '집'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⑤번의 '고향'은 수택이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공간인데, 반감을 느꼈던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여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4. [출제의도] 장면의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A]는 수택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강조했던 '흙냄새'의 의미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택은 도둑을 잡았을 때 자신을 때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행위가 흙에 대한 애정과 인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작품은 주인공이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B]에는 흙과 친해지려는 태도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는 수택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B]에서 또 다른 수택은 '퇴화다', '패배이다', '자위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농촌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택을 비웃고 있다. 이에 대해 수택은 '아무것도든 좋다'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농촌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견뎌내고자

하고 있다. ①번에 진술된, 도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6.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㉔은 수택이 고향에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차가운 시선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였던 증오보다는 견딜 만한 것이었음을 되새기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도시적 삶의 방식을 지닌 수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이 지닌 아버지와 대결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㉔은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 주인공이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㉔에서는 주인공이 신문기자로 살게 되면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고뇌를 '희극'과 '비극'이라는 상반된 어휘를 사용해 드러내고 있다. ㉔에는 주인공이 흙의 냄새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흙내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전환의 계기가 된다. ㉔에서 주인공은 강중이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다. 이는 농작물에 대한 주인공의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언어 **

□ 출전: 이익섭, <국어학개설>

17. [출제의도] 글의 전체 파악하기

이 글은 방언권의 전이지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개신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개신이란 기준에 없던 언어가 새롭게 창조되거나 변하는 것이므로 언어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잔재지역은 공간의 제약에 의해 개신의 물결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개신과의 침해를 받지 않는 지역은 언어의 고어형이 많이 간직하고 있다. 제주도나 태백산맥의 어느 마을은 모두 지리적 요인에 의해 해당 언어의 고어형을 간직하고 있다. 반면 경상도 마을과 휴전선 근처의 마을의 언어 현상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언어 현상으로, 언어의 고어형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9. [출제의도] 그림을 통해 세부 정보 추리하기

A, B, C 모두 개신과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개신이 시작된 '방사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지역의 개신파가 가장 크므로, '니'의 세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A에 비해 D에서는 방사의 중심지에서 멀어졌으므로 '니'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D는 개신파의 양 끝이 만나는 전이지대이므로 '니'와 '네'의 의미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E는 잔재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전히 '네'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⑤번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기술 **

□ 출전: 박병운, <뇌파를 통제하는 바이오피드백 기술>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 의하면 뇌파는 눈 깜박임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변화한다고 하였기에 뇌파는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뇌파가 나오도록 반복 훈련하여야 하며(④), 정상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모두 뇌파 감지는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 및 추론하기

중폭 회로의 기능은 입력된 뇌파에 강한 전압을 가하여 약한 전기신호를 강하게 증폭하는 역할을 할 뿐, 뇌파의 양을 늘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치료 후에는 알파파·세타파·델타파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잘 발달되어 잠을 잘 자게 되어야 정상이다. 따라서 알파파·세타파·델타파 발생 회로가 반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러한 뇌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적절한 치료 결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3. [출제의도] 한자어의 의미 파악하기

㉔의 '바꾸어'는 문맥상 '다른 형태나 상태로 바꾸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이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전환(轉換)하는'이다. '교체(交替)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유치환, '선한 나무'
(나) 고희철, '수색으로 가며'
(다) 이정, '풍계육가'

24.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노송'을 통해 삶의 정신적 가치를,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색'을 통해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에서는 속세의 공명과 욕심에서 벗어난 무욕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태백 같은 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수색의 모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공간이며, (다)의 '띠집'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가)의 '길가'는 화자가 추구하는 노송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노송이 배어지지 없기에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화자의 외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외적 세계이다. (나)에 표시된 '수색'은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적 정감이 살아 있는 순수한 세계이다. (가)의 '바람'은 노송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며 (다)의 '청풍'은 화자가 좋아하는 자연물이다. (나)의 '행정과 기사'는 화자와 달리 천박한 수색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다)의 '옛사람'은 자연을 두고 떠난 존재이다. (나)의 '서울'은 진정한 수색이 가능하지 않은 부정적 공간이며, (다)의 '홍진'은 자연과 대립되는 어지러운 속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선한 나무', '탄식하듯 울고 있어' 등의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의 앓고 있는 수색을 의인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출제의도] 주어진 관점을 바탕으로 감상하기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에는 노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즐겨 들으며 그로부터 정신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행동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8.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화자의 정서를 추리하여 일기를 썼을 때 적절한 내용을 찾는 유형이다. 화자는 이름뿐이고 말뿐인 수색에 대해 의문을 느낀다. 이 공간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수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가 추구하는 수색은 태백 같은 산이 있는 곳, 석탄을 캐는 노동이 있는 곳, 남포동의 소박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수색과 너무도 다른 현실의 수색은 화자에게 '날이 갈수록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9.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제4수의 '욕심'은 세속적인 욕심을, 제6수의 '홍진'은 세속을 뜻한다. 화자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만족하는 태도를 지니므로 '홍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의 '청풍, 명월, 산, 물'은 화자가 좋아하고 즐기는 자연물이다. ②의 '문'은 '창'과 달리 세속으로 통하는 통로로 화자는 이를 차단하고 있다. ③의 '바람비'는 어지러운 속세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작곡'을 맘에 두지 않는다. ④의 '낙숫대'는 화자가 지닌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화자는 '처간'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예술 **

□ 출전: 하워드 리사티, <공예란 무엇인가>

30. [출제의도] 제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공예가 순수미술과는 달리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스튜디오 공예를 통해 공예의 미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은 '공예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적절하며 이의 부제는 '스튜디오 공예가 보여주는 가능성'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1. [출제의도] 대상의 특징 추리하기

㉠은 '공방 공예'로 공예가들이 기능에 충실한 공예품을 만든 것이라면, ㉡의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으로부터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거하여 공예의 전통에서 벗어났으며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관람자들과 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2. [출제의도] 대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TV 모니터를 예술의 소재로 사용하여 본래의 기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못'과 이 작품은 공예품이나 TV 등의 상품을 예술의 소재로 사용하여 작가 자신의 미적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물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예술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김원전'

3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김원의 말을 통해, 김원이 아귀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한 후 지하 동굴에 갇히게 된 사건을 알 수 있다. 용자의 말을 통해서도 아귀가 용궁에 침입한 사건과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게 된 이유 등을 알 수 있다. 용궁의 배경이 묘사되고 있으나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으며, 김원과 용자도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4. [출제의도] 공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 파악하기

김원은 용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용자는 지하 동굴에 갇힌 김원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김원이 아귀를 죽인 것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모험담은 낯선 공간에서 위험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세계에서 신기한 경험을 다룬 이야기이기에, 김원이 '지하 동굴'과 '용궁'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그런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5.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설화의 '옛날 어느 곳'이라는 막연한 배경을 소설에서 '대명국'으로 구체화시켰다고 해서 이 작품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흥미를 위해 장면을 추가하거나 설화의 장면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는 것, 소설에서 천상계를 설정해 서사가 복잡해지는 것 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황명을 받들어 공주를 구출하는 것은 당대의 '충'의 이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6.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에서 용자는 김원이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① '백골난망(白骨難忘)'은 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② '청천벽력(靑天霹靂)'은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 ④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⑤ '겸양지덕(謙讓之德)'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마음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시나리오 **

□ 출전: 여수중 각색, 황순원 원작, '독짓는 늙은이'

37.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장면 82를 보면, 나그네는 똥손이와의 우연한 만남을 인연으로 보고 있다. 나그네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고향을 찾은 것이 똥손이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장면 88의 효과음은 자식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환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지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9. [출제의도] 다른 매체로 변용하기

장면 88은 송 영감이 돌이를 양자로 보내는 장면이다. 가난하고 병든 송 영감은 더 이상 돌이를 키울 수 없어 '방물장수'를 통해 다른 집 양자로 보내려 한다. 이를 방물장수가 돕고 있는데, 방물장수는 아버지에 대한 돌이의 미련을 없애기 위해 송 영감에게 죽은 척하라고 한다. 방물장수는 돌이를 데려가기 위해 이 글의 지시문에 나와 있듯 '겁주듯'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과학 **

□ 출전: 선 B. 캐럴, <이보디보>

40.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발생'과 '이보디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글을 시작하고, '호메오 유전자'를 '지휘 통제소'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며 그 역할과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초파리와 쥐의 실험 사례를 제시하여 생소한 개념인 '이보디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1. [출제의도] 유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 찾기

모든 동물은 공통적으로 호메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계통적으로 아주 동떨어진 종들도 호메오 유전자의 기능은 유사하다. 즉, 발생 과정에서 호메오 유전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물의 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기본 선율을 어떻게 변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곡들이 창작되는 재즈와 유사하다. 검색 사이트는 정보 활용의 도구, 탐사용 로봇은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도구, 톨게이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 하드디스크는 대용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호메오 유전자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2.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 추리하기

4문단을 통해 Z를 R로 대체하면 그곳에서는 유전자를 제공한 ㉡의 다리가 아닌, ㉢의 정상적인 다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P와 X는 모두 눈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파스-6 유전자이며(①), 4문단을 통해 Q를 Z에 이식하면 ㉣에는 다리에 입의 조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②). 그리고 ㉡와 ㉣에는 눈의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므로, 그들의 공통 조상도 파스-6과 같은 호메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④). 또한 호메오 유전자의 순서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의 순서와 일치하므로 Q와 R의 위치를 바꾼다면 '눈-다리-입'의 신체구조를 가진 개체로 발생할 것이다(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해 기억하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음악을 듣다'라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사회 **

□ 출전: 성백남, <미시경제학>

44.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내용 이해하기

독점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차별을 실시할 때,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한다(①). 독점기업은 지불용의금액을 알지 못하기에 소비자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③). 소비자의 지불용의금액을 아는 경우, 소비자잉여를 모두 가져올 수 있으며(④), 독점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것이다(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5. [출제의도] 전략에 담긴 전제 파악하기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금액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거나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 소비자들의 특징에 따라 시장을 분할해서 가격을 차별하는 방법 등으로 '가격차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독점기업의 전략은 소비자의 특징 및 심리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갑, 을, 병의 상황은 독점의 상황이다. 병의 전략은 학생과 어른의 지불 능력이라는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판매 전략을 달리하므로 3급가격차별에 해당한다(③). 갑의 전략은 대량 구매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2급가격차별이며(①), 을의 전략은 판매 경험에 의해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2급가격차별로 볼 수 없다(②). 산 정상에 음료수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자가 많아지므로 갑, 을, 병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며(④), 음료수가 한 병이고,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가장 높은 가격에 팔 경우 이익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대량 구매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갑의 방법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인문 **

□ 출전: 김석, <프로이트&라캉-무의식에로의 초대>

4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마지막 문단을 보면 욕망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므로 자기 소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욕망은 자기 소외적 성격을 지닌 것이지,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8. [출제의도] 핵심 단어의 관계 파악하기

지문에 따르면, 아이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때 '이미지'는 수단이나 방법이며 '정체성'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나 목적에 해당된다. 3문단에 그림자를 통해 존재감을 느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상을 통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다. 그런데 '욕망 : 의지'의 관계는 표현물 : 표현 내용의 관계이며, 더구나 내면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 욕망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9. [출제의도] 평가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자아가 자생적이라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캉이 지적하고 있는 '자아가 타자다'라는 말과는 대립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형성이 자생적이라는 <보기>의 관점에 대해 라캉은 자아가 타자를 매개로 구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0. [출제의도] 접사의 의미 파악하기

접두사 '뒤-'는 '뒤편,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경우와 '뒤집어', '반대로'의 뜻을 더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그런데 ㉡와 ㉢의 경우는 전자의 의미로, ㉡~㉤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